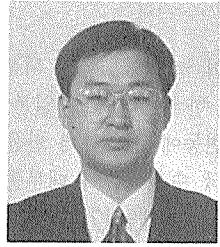


최근의 엔고와 한국전자 산업의 과제

송 병 태
대우경제(연) 경영
전략 연구본부
연구위원



1. 최근 한국전자산업의 수출동향

금년 들어 한국 전자제품의 수출은 전자부품 부문의 대폭적인 수출 호조를 배경으로 쾌속의 향진을 지속하고 있다.

1월~7월중 전자제품 수출은 전년동기비 22.6%의 증가(16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91년 이후 3년만의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 이상의 증가라는 면에서는 '88년 이후 6년만의 실적이다.

이 기간의 수출실적을 좀더 현실감 있게 비교하자면 '94년을 5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이미 '93년

의 수출실적(222억 2,700만 달러)의 72.3%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는 27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270억 달러는 한국 전제 수출 목표의 30%에 상당한 것으로 역대 최고의 수출비중('93년 27%)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7월중의 수출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단연 전자부품의 수출이 92억 달러를 넘어서 전년동기비 48%의 증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가정용전자의 수출도 10.6% 증가한 39억 달러의 호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용전자는 3.2%의 저

조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수출실적도 한국의 10대 수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이 감소(▲6.8%)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같은 기간 대말레이시아 수출은 중국의 42.4% 증가에 이은 32%의 증가를 보인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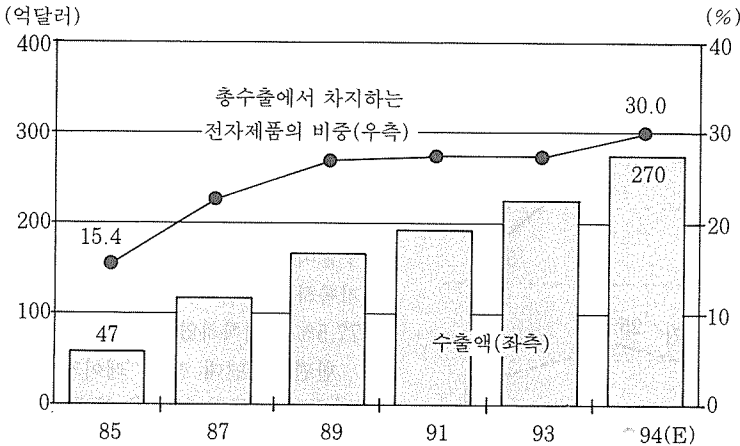
이것은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거점화전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한·일간의 경쟁이 제3지역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시사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전자산업의 1, 2차 엔고 활용평가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격히 절상된 소위 '엔고'는 지금까지 세차례 있었다. 1차는 1975년 12월부터 1978년 10월간의 35개월이며, 2차는 1985년 2월부터 1988년 11월간의 46개월, 마지막으로 3차는 1990년 4월부터 현재까지 52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기간이다.

이러한 엔고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

<그림 1> 한국 총수출액중 전자제품의 수출비중 추이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대우종합통계 1994.8

장이 늘 설득력있게 되풀이 돼왔는데, 한국이 이렇듯 일본 엔화의 환율변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 수출상품의 대부분이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일본에서 주요 원부자재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특히 한국의 전자산업은 일본 전자산업의 발전과정을 뒤쫓고 있는 형편이어서 일본의 경제환경 변화는 한국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버렸다.

이렇다보니 국내에는 '일본에게 불리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것이고, 반대로 일본에 유리한 것은 한국에 불리한 것이다'라는 수화적인 이분법(二分法)의 사고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면 과연 과거의 1, 2차 엔고는 한국전자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이 미래에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행을 구조화시켰는가, 이러한 측면의 평가를 올바르게 내림으로써 최근의 수출 활황과 엔고와의

상호관계를 보다 객관화시켜서, 앞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를 되도록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문제의 시각을 '엔고 환경을 객관적이고도 지속적인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맞추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가. 엔고의 배경과 그 특징

우선 전자산업에서 바라본 1, 2차 엔고환경을 살펴보자.

1962년 소니사가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TV를 발매한 이래 일본은 '65년'~'70년사이의 「이자나끼경기」라는 경제호황을 맞아 소위 3C(Car, Coolar, CTV)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미 패전직후 미점령군 총사령부(GHQ)로부터 품질관리기술과 양산기술을 터득한 일본의 대기업들은 국내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러한 대량생산력의 강점을 배경으로 칼라텔레비전의 대미수출을

개시하였다(1965년).

'72년에는 CTV나 Tape Recorder의 수출가격 규제를 스스로 실행할 정도로 일본의 수출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을 계기로 야기된 석유위기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졌는데,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75년에는 GNP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미 석유위기 이전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다져진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은 미국기업들로부터 미국정부에 대하여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할터였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1차엔고는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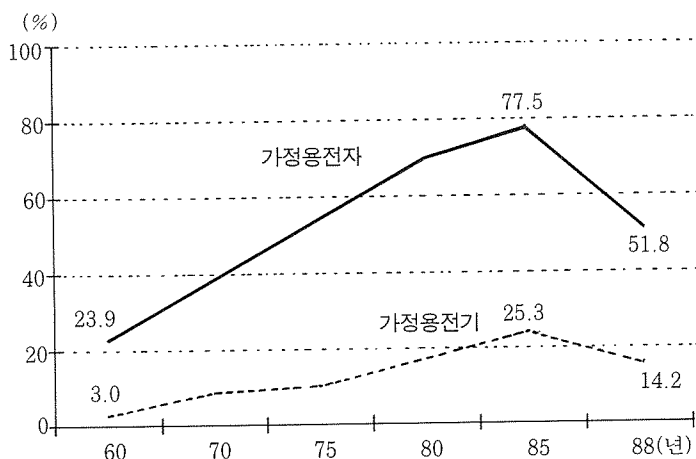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일본경제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경기가 바닥을 그린 바로 1975년인데, 그 돌파구 역할을 한것이 대영수출이었다.

이때의 일본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의 보전을 위하여 인력절감과 성력화투자를 본격화 하여 '72년~'77년 사이에 여자종업원이 42%나 감소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엔고를 오히려 경쟁력강화의 기회로 삼은 일본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국내 가전제품시장이 포화되자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에 재차 나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5년에 가전산업의 수출비중은 60.8%로 전후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가정용기기는 77.5%를 기록하였다.

한편 '80년대 전반 '레이거노믹스' 하의 미국경제는 ① 감세를 통한 국내 경기의 확대와 거액의 재정적자 발생, ② 달러강세로 미국

<그림2> 일본 가전산업의 수출비중 추이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표 1〉 엔고 시기별 경제지표 비교

	제1차	제2차	제3차
지속기간	'75. 12~'78. 10	'85. 2~'88. 11	'90. 4~현재
절상률(%)	41.4	53.5	34.4
절상속도(연율,%)	16.7	18.1	9.6
원화환율			
₩/\$	변동없음	18.8%절상	14.1%절하
₩/100₩	73.4%절하	68.4%절하	81.9%절하
엔고배경	○일본 경상수지확대지속 ○미·일 무역마찰 ○유럽 통화 동요	○플라자합의 ○미국 쌍둥이 적자 ○파리 G7의 루블합의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유럽통화위기 재연 ○미·일 포괄경제 협력 결렬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③ 무역적자 확대로 채무 국가로의 전략 등으로 악화되어 간 반면, 일본의 무역흑자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는 그간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던 국제경제체제와 금융메카니즘에 전례 없는 불균형을 노정 시키게 되었다.

'85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의 5개국(G5) 정상은 달러 안정화에 합의하게 이르렀는데 이것이 2차엔고를 몰고 온 이른바 '플라자합의'이다.

이로써 엔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기말기준)은 '84년 251.1₩/\$에서 '87년에는 121.1₩/\$으로 절상되었다.

나. 한국전자산업의 엔고대응 평가

① 1차 엔고

한국의 전자산업은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에서 범람하는 가운데 기초를 세워야하는 매우 딱한 형편에

서 출발했다.

비록 1959년에 국산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조립생산되었으나, 이미 우수한 외국제품에 익숙해진 일반 소비자들의 기호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더구나 대기업이 전자산업에 뛰어들었던 일본과는 달리 거의 모든 내국인 업체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재개발 → 부품개발 → 완제품개발이라는 일련의 발전단계(후반부에서는 '원칙'이라고 표현하였음)를 거치지 않은 채, 소재수입 → 부품제조 → 완제품조립(혹은 부품수입 → 완제품조립)이라는 어정쩡한 체제가 국내에는 유아무야 구축되어 버렸다.

이나마도 1961년에 취해진 「특정의래품 판매단속조치」가 있는 연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이당시 일본은 이미 TV, 냉장고, 세탁기의 보급이 성숙단계를 지나고 있었으며 1965년에는 CTV의 수출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자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의 궤도에 오른 것은 1966년 미

국의 모토롤라, 웨어차일드 등 반도체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되고, 1968년에 「전자공업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1차 엔고가 시작되기 전후인 1974년 현재 전자제품의 생산규모는 8억 달러 남짓이었으며 수출액은 5억 5,000만 달러였다. 당시 생산에 대한 수출비중은 69%에 달했는데, 이 수출실적중 외국인을 포함한 합작투자기업의 수출이 무려 74.3%를 차지하고 있어서 '75년부터 시작된 1차 엔고의 수혜자는 한국이 아닌 이들 외국투자자본이었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은 한국의 저임과 높은 노동생산성을 이용하려는 조립위주의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더욱 고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차 엔고는 원천기술의 국산화 기회를 놓쳐버리게 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1차 엔고가 마감된 1978년의 한국전자산업의 생산규모는 22억 7,000만 달러로 1974년의 실적(8,100만 달러)을 2.8배 가량 상회하였으나, 수출실적은 같은 기간 2.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엔고기간중 한국전자산업의 최대 생산부문인 전자부품('75년~'78년중·전자산업 생산의 53.9% 점유)에 있어서는 엔고가 마감되는 1978년 현재 전자제품수출의 44.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을 포함한 합작사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았으므로(58.5%) 이들이 엔고의 최대 수혜자였음이 증명된다.

1975년까지 국내에 도입된 137건의 기술 가운데 제조기술이 76

건, 기술훈련이 41건 등 내용상으로 보아 기술자급의 기회가 이미 봉쇄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원인 제공측을 불문하고). 더욱이 1975년말 현재 91개업체중 70개사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건수의 81%, 투자금액의 58.6%를 차지한 국가가 일본인 점을 감안하면 '60년대 후반부터 저임금 국가로 국제화 전략을 전개한 일본의 성장전략에 한국은 포위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② 2차 엔고

대체로 한국기업들은 2차 엔고에 대한 향수(?)를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지표상으로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들의 재무구조 면에서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1985년 348.4%에서 1988년 296%까지 내려갔으며, 차입금의존도 46.7%에서 39.4%로 낮아졌다.

국가전체로도 경상수지가 8억 8,700만 달러의 적자에서 141억 6,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수출액은 300억, 400억, 500억 달러대를 이 기간에 돌파하여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황을 구가했음은 틀림없다. 특히 전자제품의 수출액은 3.8배 증가하여 한국 최대의 수출산업으로 위치하면서 엔고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린 분야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2차 엔고는 1차 엔고시와는 달리 그 과실이 국내 기업에 회수되었던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는 일본이 1차 엔고시에는 여전히 수출증가세가 지속되었던 데 비해, 2차 엔

〈표2〉 2차 엔고시의 한국경제

	1985년	1988년
(단위 : 백만달러)		
경상수지	▲887	14,161
무역수지	▲ 19	11,445
수출액	26,442	59,648
전자제품(비중 %)	4,318(16.3)	16,562(27.8)
수입액	26,461	48,203
(단위 : %)		
제조업 부채비율	348.4	296.0
차입금 의존도	46.7	39.4
설비투자비율	72.0	80.9
1인당 부가가치비율	9.3	21.1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대우종합통계 1994. 8

고시에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으리 만치 국제사회의 대일 경제가 한층 강화되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1981년의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계기로 일어난 CTV에 대한 대형 국내수요와 더불어 양산체제가 구축되었던 점과 같은 해 전자식 VTR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중인 이들 대형 상품에 대해 일찍부터 충분한 공급능력을 보유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덧붙여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80년대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의 설립 붐도 제품개발력을 강화시킨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내실면에서는 2차 엔고 기간중 오히려 후진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또 한번의 도약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한국기업들은 일본의 수출이 급속히 감소된 공백을 성급하게도 저가격의 물량공세로 메우려함으로써 '통상마찰', '수익성악화', '원화절상압력'을 초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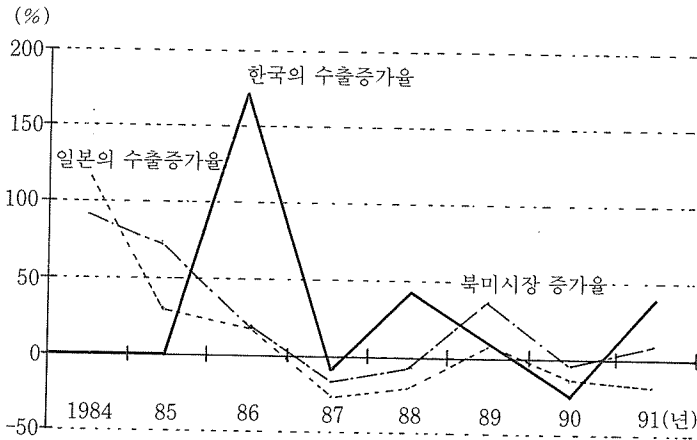
또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R&

〈표3〉 2차 엔고의 부정적인 성과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제조업의 영업이익률(%)	7.8	7.9	7.2	6.8
원화환율(₩/\$)	890.2	861.4	792.3	684.1
통상마찰	CTV	CPT, VTR	CTV, CDP Video Tape	MWO, CPT 키편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그림3〉 북미시장의 VTR 수요와 한·일 수출증가율 비교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전기공업통계」각년호,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각년호,
 일본관세협회 「일본무역월표」 각년호

D 투자증가율을 크게 떨어뜨려 기술자급기반의 구축이라는 여망이 크게 손상되었다.

가전제품중 일본의 국내생산비율이 높으면서 엔고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했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제품인 VTR 수출에 있어 한·일 양국의 수출형태를 비교하면 양국의 시장대응능력을 극명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비교시장은 북미시장으로서 수요가 '80년대 중반까지 급증하다가 후반부터는 감소내지는 횡보국면을 보였는데 〈그림 3〉에서 보듯이 일본은 시장수요의 변동에 매우 정교하게 대응하여 수출증감률 곡선이 북미시장의 수요증감률 곡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공급물량도 한국이 대량 수출을 개시한 1986년(239만 3,000대)이후 직접 공급물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대신 현지생산을 늘려 시장방어에 나섰던 것

로 파악된다.

한국의 경우는 수출증감률 곡선이 북미시장의 수요증감률 곡선과 엔고기간중 매우 불일치를 보임으로써 불안정한 시장전략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도한 공급을 유지함으로써 시장교란자로서 주목받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2차 엔고시에 기술집약도가 높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DRAM 등의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것이나 전전자식 교환기(TDX-1)의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그 효과가 현재의 3차 엔고시에 반영되고 있어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다.

3. 3차 엔고와 한국전자산업의 과제

대달러 환율이 140엔대에까지 회복되었던 엔화가 '90년 4월부터 절상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금번의 엔고는 그 지속기간이 과거 1, 2차에 비해 길면서도 절상폭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낮다.

또한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절상속도도 연율 9.6%에 불과해 다소 승통이 열려있지 않는가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의 환율 절상에 있어서는 달러당 100엔을 돌파하느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튼 일본으로서는 전후 유지되어 왔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기업들은

〈표4〉 3차 엔고에 따른 일본기업들의 대응전략

일본의 대안	과 제	문 제 점
내수증시	○ 대형 신상품개발 ○ 고가의 소량다품종 생산	○ 내수부진
글로벌화 강화	○ 잔존 국내 중·소규모 부품업체의 해외이전	○ 기존 해외생산체제의 재구성 ○ 국내산업의 공동화
수입확대	○ 산업구조개편	○ 하청계열구조의 정비가 쉽지 않음 ○ 국내 유통지배력 약화 ○ 첨단산업분야의 미국경쟁우위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표 4〉에서와 같이 간단치 않은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국으로서는 일본 국내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의 기회와 해외생산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 격화라는 위협이 병존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들중 어떤 경우든 한국은 「수출확대=대일 수입확대」라는 숙명적인 멍에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1, 2차 엔고시에 대일 기술자립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였으나 금번의 엔고 국면에서는 이제야말로 한국전자산업의 독립을 선언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국내의 여론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다시 초점을 흐리는 듯한 구태가 재연되고 있어 지각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달 국내의 무역관련 모기관에서는 엔화의 10%절상은 한국의 연간수출을 17억 8,000만 달러 증가시키며, 이에 비해 대일 수입은 8억 2,000만 달러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결과적으로 9억 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그럴까. 〈표 1〉에 지적된 바와 같이 3차 엔고가 시작된 90년부터 현재까지의 엔화의 절상폭은 연율 9.6%를 보이고 있다. 거의 10%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90년 ~ '93년 중의 무역수지가 실제로 흑자였는지 살펴보자. 실상은 같은 기간 무려 21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물론 '93년도 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그 이전과는 다소 추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역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분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금년 1월~7월중만 보아도 전자·전기부문에서만 대일 무역적자가 23억 6,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전체의 무역수지도 42억 6,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불과 엔화의 절상폭이 0.8%인데도 말이다.

1, 2, 3차의 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 교역의 숙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의 금융비용과다, 인건비 상승, 행정규제, 신상품개발의 지연 등 여러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원칙' 이랄 수 있는 '소재개발→부품개발→완제품개발'이라는 발

전의 근본 틀을 갖추지 못한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흑자는 국내기업이나 더더욱이나 일본기업들의 글로벌체제가 강화되면서 해외로부터의 부품구입이 용이해졌다는지, 국내 개발품은 코스트나 품질 불안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한다.

그러나 실상은 앞의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일 무역적자가 늘고 있는 수입품목은 간단하게 해외에서 조달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일본은 이러한 첨단분야(어느 시기에서건)만은 계속해서 국내에서의 개발·생산체제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며, 성숙제품(이를테면 가전제품)의 해외 생산이관에 있어서도 관련된 자재의 공급은 계속해서 자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에서 넘겨 받은 산업경쟁력의 리더쉽을 이제는 후발국(특히 한국 등 NIEs)이 다시는 모방할 수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특정의 가전제품 시장이 포화되었을때 경영자원을 다른 분야로 이동한 미국과는 달리 이들은 철저히 탈성숙화전략(제품의 차별화와 다양화, 고급화, 저가격화 등)을 통해 제2, 3의 수요를 창출해가며 후발국의 진입을 저지해 왔던 것이다.

특히 NIEs제품과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집적회로를 개발하여 부품수를 줄인다는지, 생산이나 검사공정을 자동화하여 원가를 낮추었으며, 더욱이 해외 생산기지를 소위 '기러기' 형태로 포

〈표5〉 한·일간 전자·전기 무역수지 현황(1994년 1월~7월)
(단위: 천달러)

품 목	대 일 수출	대 한 수출
디지털집적회로	636,975	345,710
CTV	126,191	-
디지털이외 집적회로	57,006	22,574
전자계측기	-	177,452
IC 부품품	-	114,455
계	1,703,997	4,062,482

주: MTI 6단위 품목임. 자료: KOTIS

진시켜(말레이시아, 태국 → 인도네시아, 중국 → 베트남)가며 저축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후발국들이 영원히 추격의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NIEs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자본(외국합작기업이 아닌 점에서)이 유일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 금번 3차의 엔고를 계기로 한국전자산업이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일까. '원칙으로의 회귀'가 해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한 상품개발력을 담보해 주는 전자소재, 전자부품 등 요소기술에 눈을 돌리자.

최근 1년간 한국의 몇몇 전자업체들은 창사 이래의 호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의 잣대

로 재어 보면 과연 어떨까. 진정한 한국전자산업의 홀로서기를 위해서 3차 엔고로 수확되는 잉여는 '원칙'으로의 재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에도 이러한 잉여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한국전자산업은 영영 속없는 덩치 큰 아이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본회 정보자료 구독회원제 실시 안내

“본회에서는 전자·정보산업계의 정보자료 편의제공 목적으로 정보자료 구독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산업동향 및 시장조사, 기획업무 전반에 걸쳐 필요충분조건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자료회원제	전자진흥 구독회원제	경기동향 구독회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포자료 <p>월간 전자진흥 분기간 전자전기공업경기동향 전자전기 공업통계 한국의 전자공업 회원명부 영문 디렉토리 전자부품 총람 한국전자전 디렉토리 등의 정기간행물과 수시 간행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구분 • 회 원 사 : 특별회원 연간구독료 16만원 • 비회원사 : 일반회원 연간구독료 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특성 <p>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의 대변지로서 정부의 정책, 국내외 산업동향, 업계의 신제 품, 최신기술정보 및 업계동향 전자수급 통계 등으로 편집구성. -2월호 : 세계시장 전망 특집 -3월호 : 업계 경영계획 특집 -10월호 : 한국전자전 특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구분 • 회 원 사 : 특별회원 연간구독료 30,000원 • 비회원사 : 일반회원 연간구독료 4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행물 특성 <p>우리나라 전자·정보산업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와 통계 위주로 편집 구성. -전자공업 부문별 동향 -생산·수출 시판 -주요 품목별 동향 -가동률 -수출입 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구분 • 회 원 사 : 특별회원 연간구독료 30,000원 • 비회원사 : 일반회원 연간구독료 50,000원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자 료 실

강남구 역삼동 648(전자회관 11층) Tel) 553-0941/7 (교환) 43

Fax) 563-7339, 555-6195